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결혼 후 시어머니를 따라 사찰이 아닌 보살집(?)에 다녔습니다.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한 해 스님 등을 봐주기에 다녔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보살이 운영하던 절이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중 한 사찰을 소개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남편에게 “처가의 안 좋은 기운들이 넘어와서 하는 일이 안 풀린다. 처가의 총 맞고 돌아가신 영가를 저장전에 올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등 가족 49재, 백중 천도재 등을 절에서 지내왔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처지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다른 큰 사찰로 옮겨 모실까 생각도 했지만 힘들 때면 스님이 사주도 봐주시고 상담도 해주셔서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우연히 생긴 아기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지만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기에겐 지은 죄를 볼 보살님께 기도드리며 뉘우치고 싶습니다. 이마저도 자신은 없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일까요? 요즘은 모든 것이 완벽해보였던 남자친구의 직업부터 여러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니 도망가고만 싶습니다.

**A** 우선 내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혼관, 배우자 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싶으신지, 동반자로서 인생을 같이 보낼 친구로서의 배우자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말이지요. 배우자에 대

스님 요구로 끊임없이 천도재 지내는 게 부담 돼요  
스님은 불법 전하는 스승, 체계적인 불교공부 우선

**A** 친정어머니의 49재를 지내고 힘들 때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곤 했던 인연 때문에 선뜻 다른 절로 옮기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다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결정내리기 쉽지가 않으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니는 절의 스님에게 상담을 받으신다 했는데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는 스승으로서 불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삶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불교에 입문 한지가 얼마 안 된 초심자라면 일단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불교기본 교육은 조계종 주요 사찰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 기본교리, 부처님의 생애 등 정법에 관해 공부를 하다보면 기도를 하는 이유와 어떤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성불의 씨앗을 잘 키워서 큰 지혜를 얻고 나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흔들림 없는 힘이 생깁니다. 또 앞으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변처럼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것도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Q** 2년 넘게 사귀던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 분명한 기준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결혼이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본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감싸 안을 용기와 수용적 자세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조건이나 열정만으로는 이루기 힘들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갖추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혼 당시의 물질적인 조건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제적 풍요는 함께 살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또한 내담자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길 바라는 것으로 봐서 신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도 수행은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하는데 지혜의 힘을 주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율리엄 글라셔의 <결혼의 기술>이란 책을 추천하며, 부디 지혜로운 결정으로 배우자를 선택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a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 “스님, 우리 오늘 퇴원해요”

## 자비법당 탐방 서울아산병원 법당

“스님, 우리 오늘 퇴원해요.”

법당 안을 들어서며 인사한 권미숙(42)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곧장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이내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예불을 올리던 서울아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은 “축하한다” 말했다. 스님의 예불은 계속되고 권씨의 울음소리가 목탁소리와 함께 법당 안을 적신다. 예불이 끝나자, 스님과 다른 불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권씨 남편의 퇴원을 축하했다.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정말 이 순간이 믿겨지지 않아요. 막상 퇴원을 하려고 보니, 부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권씨의 남편은 백혈병으로 7개월 전 입원했다. 권씨는 “남편이 완쾌된 것은 아니지만, 퇴원하게 돼서 기쁘다”며 “기도에 감응해 주신 부처님 은혜를 잊지 않으려 병원을 나가서도 자주 다닐 절을 알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원자 김숙희(54)씨는 “병원 안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우연히 지나다가 법당을 발견해 바로 들어가 예불을 드렸다”고 말했다.

“법당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고 있었어요. 함암치료를 받는 중인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종플루로 인해 간호사들이 못 다니게 했죠. 이제 법당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매일 기도 드리러 올 거예요.”

지홍 스님은 “병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라며 “내가 왜 아파야 하지?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은 지워버리고, 열심히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법당은 일명 ‘기도 밭’이 좋은 법당”이라고 소개했다.

“여기 오는 불자들이 얼마나 절을 잘하는지 몰라요. 1000배, 1만 배는 일도 아닌걸요. 나도 그런 불자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대견해요.”

다른 병원과 다르게 아산병원 법당은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끼고 있다. 작년 1월, 병원 측은 일부러 수술실과 중환자실 바로 옆에 종교실 공간을 마련했다.

“여기(아산병원)는 제3차 의료기관이라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가족들은 의학적인 힘 외에도, 다른 무언가에 더 기대고 싶어 하죠. 병원법당에서 하는 기도는 일생 중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 시간일 거예요. 이곳이 기도가 잘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지홍 스님은 “하루에 법당을 찾는 사람만 100여 명이 넘는다”며 “법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는데, 하루에 사용하는 차잔만 80여 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간 신종플루 때문에 스님과 봉사자들은 환자들을 거의 만나볼 수 없었다. 병원 측이 환자들의 상태를 우려해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제재했기 때문이다.

지홍 스님은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자 환자들의 근황을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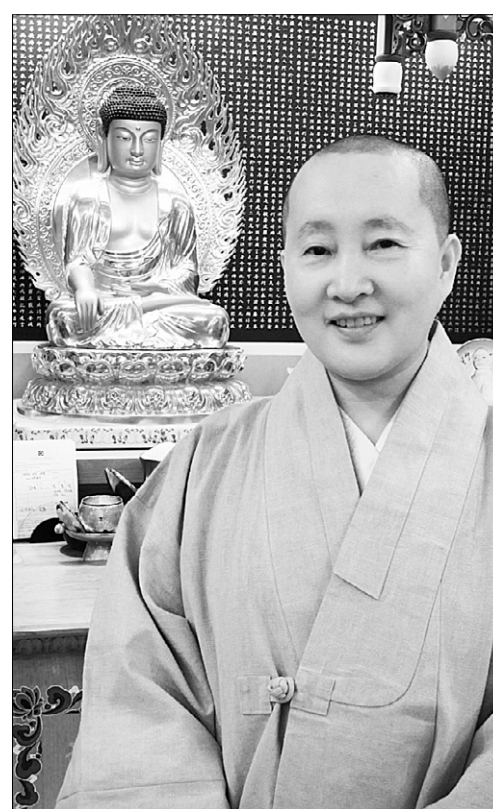
오전 11시가 되자 환우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 예불에 동참하고 있다.

## 전산시스템 통해 불자환자들 특별히 신경 써 지홍 스님의 ‘찾아가는 1:1 서비스’ 인기

“현재 아산병원에 입원한 불자환자들이 500명 정도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많은 숫자죠.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이 현재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상황인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일하는데 훨씬 수월하죠. 불자들 하나 하나를 특별히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지홍 스님의 ‘찾아가는 1:1 서비스’로 아산병원법당은 상담을 위해 법당을 찾는 이들이 많다. 이는 환자뿐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홍 스님은 우연히 시작한 병원봉사일을 계기로 현재 20년 가까이 병원법당 일을 하고 있다. 스님은 “이 곳은 하루도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라며 “사람들의 운명이 찰나찰나 바뀔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



서울아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

로 더욱 신나게 수행하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항상 자비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지홍 스님. 스님의 자비심 덕분에 스님의 눈가는 항상 젖물러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과 환자와 가족을 위해 같이 어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보았던 기적 같은 상황들을 토대로 또 다른 사람에겐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제가 할 몫이죠.”

한 불자는 “지홍 스님에게서 후광이 비취요”라고 말했다. 지홍 스님의 자비심으로 가득한 법당도 스님의 후광만큼이나 밝은 자비의 광명으로 가득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패불이운), 대령, 관옥, 응호계(신종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오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김범은 스님, 이현진 스님

###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중무원 설법전

###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중무원에서 교부)

###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범패 교육원

## 선어록의 최고봉 임제록 강좌 및 참선실수 수강생 모집

- ◆ 개강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매주 월요일)
- ◆ 대 상 : 스님, 일반인

## 무료 명상치료법회

- ◆ 대 상 : 각종 질병 및 비만 왜소한 몸 체질개선
-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까지

접수처 : 임제선학원 ☎ 02)496-3952~3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